

Morning Meeting Brief

Global Strategy

[글로벌 마켓 레이다 Weekly / 9월 2째주 전략] 9월 초, 바넘 효과 재현. 이번에는 예상치 하회

- 시기적으로 기업심리, 고용지표 통해 미국 경기 침체 미시사를 검증받고자 하는 심리가 경제지표 결과에 대한 시장 눈높이 상향
- 美 2/4분기 GDP 상향 조정, 장단기 금리 역전 정상화, 8월 ISM 서비스업지수, 8월 고용지표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기우였음을 확인
- 中 9월 수출입(10일)과 8월 실물지표(14일), 美 대선 2차 TV토론회(10일), 유럽 9월 ECB 통화정책회의(12일) 금융시장 혼란 낮출 전망

문남중, namjoong.moon@daishin.com

Macro

[을지로 지표맞집] 대선 토론은 못 참지

- JOLTs 구인건수에 이어, ADP 신규 고용 부진에 고용 둔화 가속에 대한 경계감 일부 확대, 금일 밤 고용보고서가 중요
- 다음주 대선 토론 예정, 경제정책 내용 확인 필요하며 단기적으로 관련 수혜자산 부각시킬 수 있을지 확인 필요
- 미국, 중국 물가 발표될 예정이나, 금번 결과 뿐 아니라 토론 내용으로 중장기적인 방향성 또한 탐색하는 흐름 예상

이주원, jowon.lee2@daishin.com

Strategy

[다음주 시장은?] 기술적 반등 = 단기 트레이딩 & 현금 비중 확대 기회

- 고용 불확실성 해소 후 9월 FOMC 대기 + 아이폰 & 대선 토론 이벤트
- CPI 둔화 예상, 트럼프 vs 해리스 첫 대선토론, 애플 AI 탑재 아이폰16 출시예정
- 다음주 경기침체 우려 완화, 물가안정, 통화정책 기대로 KOSPI 기술적 반등 예상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산업 및 종목 분석

[산업분석] 섬유·의복업: 주주환원 정책 통한 투자 아이디어 찾기

- 소비 전망 불투명, 성장성 저하 우려로 의류 기업 투자자 관심 저하
- 그러나 주주환원을 개선시키며 실적 개선 예상되는 기업 주목할 필요
- 의류섹터내 실적 개선, 주주환원 돋보이는 기업은 영원무역, 힐라홀딩스

유정현, Junghyun.yu@daishin.com

[Issue Comment] 금융업: 금리인하와 금융업 동향, 그리고 투자전략

- 금리 하락에도 거래대금 감소, 회사채 발행도 저조, IPO시장은 양호
- 은행은 정기예금 크게 증가, 핵심예금은 감소, 9월부터 DSR2단계 적용
- 보험 신계약 2분기보다 증가, 은행/보험 Top-tier 투자 전략 유효

박혜진, hyejin.park@daishin.com

[Issue Comment] 강원랜드: 드디어 규제완화!

- 기기 추가 허용 및 영업장 확대, 분명한 호재이나 2028년부터 시작
- 외인전용존, 영주권자로 이용 대상 확대 및 베팅 한도 상향 효과는 제한적
- K-HI의 단기 목표는 달성, 장기 목표까지는 추가 규제완화 필요

임수진. Soojin.lim@daishin.com

Global Strategy

Global Strategist 문남중
namjoong.moon@daishin.com

9월 초, 바넘 효과 재현. 이번에는 예상치 하회

- 미국 경기 침체 미시사를 검증하는 경제지표 결과에 대한 시장 눈높이 상향
- 美 2/4분기 GDP 상향 조정, 장단기 금리 역전 정상화 등 우려가 기우였음
- 中 수출입과, 美 대선 2차 토론회, ECB 통화정책회의 혼란 낫출 전망

- 현 글로벌 증시는 8월 초 금융시장 혼란을 단기간 극복하면서 호재보다는 악재에 더 민감할 수 있는 시점에 놓여 있다. 시기적으로도 미국 기업심리와 고용지표 확인을 통해 미국 경기 침체를 시사하지 않음을 검증받고자 하는 심리가 경제지표 결과에 대한 시장 눈높이를 높인 만큼, 8월 초 형성된 바넘 효과가 이번에는 예상치 하회로 나타나고 있다.
- 8월 ISM 제조업지수(47.2)가 그 예로 전월치(46.8)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47.5) 하회가 미국 경기 침체를 재고조시켰다. 팬데믹 이후 미국 경제 성장을 견인한 동력이 제조업이 아니었음을 놓고 보면, 서비스업과 경기 침체 간 연관성을 더 주목해야 한다. 2/4분기 GDP 상향 조정, 장단기 금리 역전 정상화 등 감안 시, 미국 경기 침체를 반박하는 여론 확산과 5일 8월 ISM 서비스업지수, 6일 8월 고용지표(비농업부문 고용자수, 실업률) 결과가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기우였음을 확인시켜줄 것이다.
- 10일 중국의 9월 수출입과 14일 8월 실물지표 결과는 중국 경기 우려를 높이며, 오히려 정부의 정책 강화 기대와 12일 9월 ECB 통화정책회의는 독일 지원을 위한 ECB의 금리 인하 가능성 그리고 10일 미국 대선 2차 TV 토론회는 해리스 트레이드 부각을 통해 현 금융시장의 혼란을 잠재워 나갈 것이다.

표 1. 다음 주 중요 경제지표 및 이벤트 (24.9.9~9.15)

경제지표 & 이벤트명	국가	일정	전기치	예상치	방향성	내용 및 시사점
8월 CPI / 근원	미국	9.11	2.9 / 3.2 % YoY	2.6 / - % YoY	▼ / -	디스인플레이션 재확인. 8월 고용지표 결과와 기존 패턴에서 벗어나는 예상 외 물가 오름폭 하락은 베이비컷을 뒷받침
9월 ECB 통화정책회의	유럽	9.12	4.25 %	-	-	독일의 경제 성장 부진을 지원하기 위한 ECB 행보 주목. 금리 인하 시, 유럽 증시의 상방 압력은 점차 높아질 전망
8월 실물지표(산업생산, 소매 판매, 고정자산투자)	중국	9.14	5.1, 2.7, 3.6 % YoY	4.6 / 2.5 / 3.5 % YoY	▼ / ▼ / ▼	8월 수출 등과 함께 중국 경기 우려 재부각. 미 연준 금리 이하 시기와 맞물려 향후 LPR 인하 등 정부 정책 강도 강화 계기가 될 전망

대선 토론은 못 참지

미국 고용, 미국/중국 물가, ECB 회의, 대선토론

이번 주 ISM 제조업 PMI와 JOLTs 구인건수에 이어, ADP 신규고용이 예상보다 부진했다. 한편 ISM 서비스업 지수는 양호했으나 고용 세부항목이 컨센서스를 하회하여 고용 둔화 가속에 대한 경계감이 일부 높아졌다.

다행히 해고율은 0.1%p 증가에 그쳤으며, 베이지북에서도 고용발 침체 가능성은 제한적임이 확인되었다. 금일 밤 고용보고서가 경기 우려를 완화해 주는지가 중요하며, 7월 신규고용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에 주의가 필요하다.

다음 주 미국, 중국 물가지표와 대선 토론이 예정되어 있다. 금번 지표 결과뿐만 아니라 토론 결과에 따른 각국 경기의 중장기적인 방향성 또한 탐색하는 흐름이 예상된다. 전일 두 후보가 경제정책 방향을 언급하는 등 주요 쟁점이 드러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토론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최근 성장주 중심 주가 상승이 제한된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대선토론이 정책 관련 수혜자산을 부각시킬 수 있을지도 확인해야 할 변수다.

미국 8월 소비자물가는 유가 기저가 높은 탓에 헤드라인 상승률이 안정적으로 둔화할 것으로 컨센서스가 형성되었다. 다만 CME Fed Watch 기준 내년 9월까지 125bp 인하를 반영하는 가운데, 근원물가 상승률 둔화속도가 느려져 연속적인 인하가 가능할지 의구심이 유발될 수 있다. 또한 대선 토론에서 각 후보의 정책이 중장기적 측면에서 물가 우려를 자극하지 않을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최근 중국은 주요국의 대중관세 본격화를 앞두고 있으며, 밀어내기 수출은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보여 내수 회복 기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다음 주 발표될 물가와 신용지표 결과를 통해 내수 회복에 대한 희망을 가져볼 수 있을지, 혹은 대선토론이 미중갈등 격화 우려를 부각하여 중국 관련 부진한 투자심리가 지속될지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일자	국가	지표 프리뷰	예상치	이전치
9/9	중국	8월 CPI YoY/MoM	0.7/-	0.5/0.5
		8월 PPI YoY	-1.4	-0.8
9/10	미국	7월 소비자자신용	-	8.93B
		8월 NFIB 소기업낙관지수	-	93.7
9/11	중국	8월 수출액 증가율 YoY	6.8	7.0
		8월 사회용자총액	-	770.0b
	미국	8월 CPI YoY/MoM	2.6/0.2	2.9/0.2
		8월 근원 CPI YoY/MoM	-/-	3.2/0.2
9/12	유로존	9월 ECB 회의	-	-
	미국	8월 PPI YoY/MoM	-/-	2.2/0.1
		8월 근원 PPI YoY/MoM	-/-	2.4/0.3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기술적 반등 = 단기 트레이딩 & 현금 비중 확대 기회

- 고용 불확실성 해소 후 9월 FOMC 대기 + 아이폰 & 대선 토론 이벤트
- CPI 둔화 예상, 트럼프 vs 해리스 첫 대선토론, 애플 AI 탑재 아이폰16 출시예정
- 다음주 경기침체 우려 완화, 물가안정, 통화정책 기대로 KOSPI 기술적 반등 예상

이번주 증시 하락은 제조업 PMI 지표 예상치 하회가 경기침체 우려를 재점화한 결과. 지난달의 데자뷰 같지만 고용 세부 지표는 46.0으로 전월(43.4)대비 반등. 이번에는 신규 주문 지수 급락이 경기침체 우려를 자극. 시장의 약해진 투자심리로 인해 호재보다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 중. 오늘 밤 실업률이 예상대로 소폭 둔화된다면 경기침체 우려 완화와 투자심리 안정의 계기가 될 수 있음

11일 발표될 CPI도 둔화 예상. 한국 증시 추석연휴를 앞두고 또 한 번 확인하는 통화정책 가능자, 연휴 직후 FOMC가 예정된 만큼 물가 안정 지속이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신뢰도 강화로 이어질지 관건. 어쩌면 경기침체 우려 완화와 물가 안정, 통화정책 기대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 국면이 재현될 수 있음

한국 시간으로 11일 낮 트럼프와 해리스 후보 간 첫 대선 토론 예정. 각 후보자의 구체적인 정책 운영방안을 확인할 수 있을 것. 토론 분위기에 따라 향후 미국 대선 향방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 민주당 해리스 부통령의 상승세 뚜렷. 이번 대선 토론을 통해 해리스 후보가 승기를 잡는다면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신재생에너지 등 바이오닉스 관련주들의 반등 가능. 트럼프 우세 시 은행, 기계, 방산 등에 관심이 높아질 수 있음. 채권금리 변화도 주목할 부분

다음주 애플 최초의 AI 탑재 디바이스인 아이폰16 출시 예정. AI기능 기대로 전작 대비 판매 호조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IT 밴더사들의 수혜 가능성 확대. 또한 애플이 새로운 AI기능 탑재 후 'Killer APP'을 시장에 선보이며 AI 시장의 수익성을 입증할 수 있을지 또한 관전 포인트. AI 모멘텀의 피크아웃 우려와 수익성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AI 부가가치를 증명한다면, 기술주 모멘텀 연장과 함께 국내 시장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IT 업종에 반등, 상승추세 재개 동력

다음주 경기침체 우려 완화, 물가안정, 통화정책 기대로 KOSPI 기술적 반등 예상. 직전 고점인 2,720pt 회복 여부에 따라 향후 KOSPI가 박스권 등락을 보일지, 한차례 레벨다운이 전개될지 결정될 수 있음. KOSPI 반등 과정에서 아이폰의 AI 기대가 유입될 수 있는 반도체 업종과 해리스 트레이딩의 수혜주이자, 낙폭 과대주로 밸류에이션 매력 높은 IT, 자동차, 기계 업종의 단기 트레이딩 가능. 주식비중이 높은 투자자들에게는 현금 비중 확대의 기회가 될 것

실업률 & CPI 둔화 = 투자심리 개선. 단기 트레이딩 & 현금 비중 확대 기회

섬유의복업

주주환원 정책 통한 투자 아이디어 찾기

- 소비 전망 불투명, 성장성 저하 우려로 의류 기업 투자자 관심 저하
- 그러나 주주환원을 개선시키며 실적 개선 예상되는 기업 주목할 필요
- 의류섹터내 실적 개선, 주주환원 돋보이는 기업은 영원무역, 휠라홀딩스

증시 조정 시기에 주주환원 높은 기업은 좋은 투자 대안

올해 초 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 상태를 개선하고, 기업의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들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시작. 그러나 밸류업 프로그램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데다 실적 개선 모멘텀이 크지 않은 의류섹터에 대해 투자자들의 관심도 저하

그러나 실제 의류섹터내 주요 기업들은 각자 나름대로 주주환원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 중. 이제 2025년 실적이 중요해지는 지금 시점에서 1) 올해 실적 저점을 통과, 2025년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고 2) 배당 및 자사주 매입을 통한 주주환원율이 높은 기업을 찾아 투자하는 것은 의미가 있음. 최근 주식시장이 조정 양상을 보이는데 이러한 조건을 갖춘 종목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실적과 주주환원을 개선 동시에 돋보이는 기업은 영원무역, 휠라홀딩스

당사는 상기 1, 2번 조건을 통해 안정적인 투자 매력이 돋보이는 기업으로 영원무역과 휠라홀딩스 제시

영원무역(BUY, TP 56,000원)은 2분기 실적을 통해 기초 체력이 뛰어남을 다시 한번 증명. Scott 부문의 부진은 올해 연내 이슈로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 주력 사업인 의류 OEM 부문은 3분기부터 오더가 (+) 증가세로 전환되며 2024년을 저점으로 2025년 실적 개선 예상. 당사는 배당 성향은 낮지만 올해 자사주 매입(500억원)을 진행하며 주주환원율이 지난 해 대비 크게 높아졌다는 점이 의미가 있음

휠라홀딩스(BUY, TP 52,000원)도 2025년 실적 개선 가시성 높음. 당사는 2026년까지 배당성향을 50%까지 올리겠다는 배당 정책을 밝힌 바 있음. 의류 섹터내 주주가치 제고에 가장 적극적인 기업으로 올해는 적극적인 배당 정책뿐 아니라 자사주 매입(500억원) 등을 통해 주주환원율이 6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

이 밖에도 주주환원율이 높은 기업은 백산(NR), 양호한 배당수익률이 예상되는 기업은 영원무역홀딩스(NR), 한세실업(105630), 한섬(020000) 등이 있음

의류업종내 주요 종목 주주환원을 정리

(단위: %)

	주주환원율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23	24F	23	24F	24F
영원무역	11.1	29.4	11.1	15.7	3.6
휠라홀딩스	153.8	67.1	153.8	40.9	3.1
영원무역홀딩스	12.4	13.4	12.4	13.4	4.8
백산	40.6	40.1	16.7	15.2	3.1
한세실업	17.6	16.0	17.6	16.0	4.0
F&F	20.0	24.7	15.3	16.8	3.0
한섬	19.6	44.1	19.6	27.9	4.7
신세계인터	36.4	71.1	36.4	30.1	3.1
KOSPI 평균	40.2	48.1			

주: 주주환원율 = (배당총액+자사주매입)/지배주주순이익, 배당수익률은 9월 4일 종가 기준
자료: 각사,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유정현 junghyun.yu@daishin.com

투자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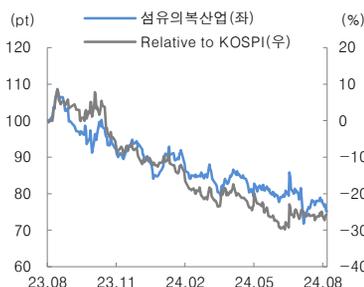
Neutral

중립, 유지

Rating & Target

종목명	투자의견	목표주가
영원무역	Buy	56,000원
휠라홀딩스	Buy	52,000원
한세실업	Buy	32,000원
F&F	Buy	110,000원
한섬	Buy	24,000원
신세계인터	Buy	25,000원
영원무역홀딩스	N/R	N/R
백산	N/R	N/R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5.3	-6.8	-12.2	-25.7
상대수익률	-1.7	-3.8	-9.0	-25.6



금융업

박혜진

hyejin.park@daishin.com

투자의견

Overweight

비중확대, 유지

금리인하와 금융업 동향,
그리고 투자전략

- 금리 하락에도 거래대금 감소, 회사채 발행도 저조, IPO시장은 양호
- 은행은 정기예금 크게 증가, 핵심예금은 감소, 9월부터 DSR2단계 적용
- 보험 신계약 2분기보다 증가, 은행/보험 Top-tier 투자 전략 유효

감소세로 접어든 거래대금 및 회사채 발행, IPO시장은 양호

지난 6월까지 연일 20조원을 상회하던 거래대금이 3분기 들어 감소세로 전환, 일평균으로는 18.3조원으로 2분기 대비 -12.4% 감소했으며 8월 27일에는 14.8조원으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음. 7, 8월 회사채 발행은 12.2조원으로 상반기 회사채 발행이 무려 62.4조원으로 역대 최대 물량이 소화되었기에 하반기 감소가 불가피. 다만 IPO시장은 7, 8월 23종목이 상장하여 아직까지는 양호한 것으로 파악. 금리 인하를 앞두고 으레 위험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하던 것과는 다른 양상. 상반기 지수 상승을 견인하던 반도체 수요 둔화,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 그리고 최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어 증시 자금 이탈된 것으로 추정

금리인하 앞두고 은행 정기예금 자금 쏠림, DSR 2단계 9월부터 적용

증시 주변 자금이 감소세로 전환된 것과는 달리 부동산 시장은 금리하락으로 대출수요가 증가하면서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시작, 9월부터 주담대 및 신용대출 신규자금 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 또한 핵심예금은 감소한 반면 정기예금으로 7월 한달 동안 15.3조원이 증가. 가계대출 제한하기 위해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대응하였으나 DSR에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규제가 적용되어 총량을 관리할 수 밖에 없게 됨. DSR에 스트레스 금리가 가산되면 연간 소득 대비 대출 한도가 하락

건강보험 판매 여전히 호조, 연말까지 CSM누적 이상 없음

CSM확보를 위한 GA 활용은 지속되고 있음. 7, 8월 손보 상위 5개사, 생보 5개사 보장성 인보험 신계약은 2분기 수준을 훌쩍 넘어섬. 연말까지 CSM상각율 및 무/저해지 보험 CSM배수 조정을 포함한 경쟁 완화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어 그 전까지 경쟁 심화는 지속될 것. 따라서 높은 신계약 판매로 보험 영업이익은 양호할 것이고 금리 하락은 FVPL자산 평가의 반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보험사 실적도 양호할 것으로 판단

전반적인 분위기 9월 들어 저조하나 금리 하락은 실보다 득이 많음

증시 주변 유동성이 감소하고 은행은 마진 하락 및 가계대출 성장 제한적일 수 밖에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 및 은행의 수익성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 증권은 거래대금 감소에 따라 순이익 소폭 감소할 수 있으나 은행은 이자이익 감소하겠지만 비은행 계열사 이익 증가, 매매평가의 증가, 대손비용 감소로 오히려 실적 자체는 개선될 가능성이 큼. 증권 역시 금리 하락에 따른 각종 운용 및 평가의 증가, IB수익 증가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음. 특히 증권,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는 금리 하락으로 조달 비용 부담이 크게 완화되기 때문에 수익 개선폭이 클 것으로 전망. 9월 들어 거래대금 감소 및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전반적인 분위기 저조하나 사실상 수익성 영향은 거의 없을뿐더러 오히려 나아질 가능성이 큰 것. 보험 역시 마찬가지로 (뒷페이지 계속)

강원랜드 (035250)

임수진

soojin.lim@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21,000

상향

현재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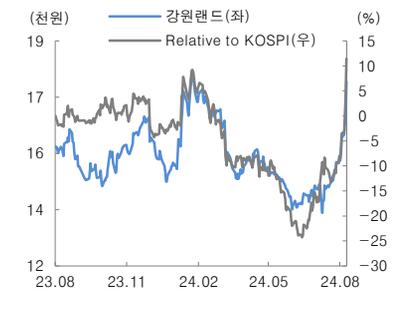
(24.09.05)

17,730

레저업종

KOSPI	2575.5
시가총액	3,793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18%
자본금(보통주)	107십억원
52주 최고/최저	18,020원 / 13,65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122억원
외국인지분율	12.31%
주요주주	한국관광공사 36.27% 강원도개발공사 5.34%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29.9	19.4	3.2	13.3
상대수익률	23.1	24.7	6.2	13.6



드디어 규제완화!

- 기기 추가 허용 및 영업장 확대, 분명한 호재이나 2028년부터 시작
- 외국인전용존, 영주권자로 이용 대상 확대 및 베팅 한도 상향 효과는 제한적
- K-HIT의 단기 목표는 달성, 장기 목표까지는 추가 규제완화 필요

투자의견 매수 유지 및 목표주가 21,000원으로 +5% 상향

목표주가는 2025E EPS 1,540원에 Target PER 13.8배(17~19년 평균 저점 PER 17.2배에 방문객 수 회복률 80%를 감안)를 적용하여 산정. 금번 규제완화로 인한 실적 상향 조정은 없으나 2분기 부가세 조세 불복 행정소송 승소에 따른 연간 100억원 비용 절감 효과 반영하며 목표주가 상향

그토록 기다리던 규제완화, 드디어 실현!

지난 4월 동사는 2.5조원 규모의 미래 사업 계획 'K-HIT'를 발표했는데, 그의 선행조건인 규제완화가 마침내 이뤄진 것. 규제완화 내용은 크게 3가지로 1) 테이블 50대(+25%), 슬롯머신 250대(+18%) 추가 허용, 2) 외국인 전용존 이용 대상 영주권자로 확대 및 베팅 한도 기존 30만원→3억원으로 확대, 3) 카지노 일반영업장 면적 기존 4,390평에서 6,129평으로 +40% 확장할 계획

기기 추가 허용 및 영업장 확대, 분명한 호재이나 2028년부터 시작

산술적 계산 시 테이블 매출 약 1,600억원, 머신 매출 약 900억원으로 합산 매출 약 2,500억원 규제완화로 확대될 전망. 비카지노 부문 확대에 인한 트랙픽 증가까지 고려 시 현 예상치를 상회하는 매출 증가도 기대할 수 있음

다만, 마지막으로 기기 확대가 허용된 2013년과 달리 금번 추가 허용된 테이블 및 머신은 영업장 확장이 마무리될 2028년부터 운영될 예정. 이에 따라 규제완화로 인한 실질적 효과는 2028년부터 보일 전망

외국인 전용존 규제완화 효과는 제한적

외국인 전용존 규제완화의 경우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해 내년 초 시행될 전망. 동사의 외국인 입장객의 경우 전체 입장객의 1% 수준이며, 영주권자의 경우 경쟁사에 이미 입장 가능한 상태로 금번 규제완화로 느끼는 메리트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따라서, 외국인 전용존 규제완화에 따른 실질적 매출 확대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

'K-HIT'의 단기 목표는 달성, 장기 목표까지는 추가 규제완화 필요

현 규제완화는 'K-HIT'의 단기 목표(카지노 제2영업장 운영)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향후 카지노 및 호텔 신축까지 추가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한 상황. 현재 기존 방문 일수제(월 15일)에서 시간 총량제로 개선하는 안을 논의 중으로 확인되는데, 10월부터 시범운영 예정인 '스마트 입장시스템'의 결과를 확인 후 추가 논의할 계획. 기대보다 규제완화의 효과를 보는 시점이 늦어 아쉬울 수 있으나 10년 만의 기기 확대 등 규제완화와 문체부의 'K-HIT'의 필요성을 지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판단하며 투자의견 매수 유지

▶ Compliance Notice

-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Research Center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위 애널리스트는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 ✓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